광양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만든다

도심권과 섬진강·백운산권 두 축 724억 투입 인프라 구축 박차
이순신대교 테마거리·백두대간 종점 명소화 등 7개 사업 추진

백운산과 섬진강의 자연자원과 이순신대교와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다른 지자체에서 볼 수 없는 산업관광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광양시가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 비약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12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심권과 섬진강·백운산권으로 나눠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조성과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종점 관광명소화 등 총 7개 사업에 724억원을 투입한다.

◇중마동 중심 도심권 관광개발사업= 광양시는 도심권 관광개발사업으로 중마중심권에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길호대교~금호대교 해변 9.4㎞구간에 2020년까지 160억원을 투자해 달빛광장, 삼화섬수변공원, 아이언테마로드 등 수변공간을 활용한 볼거리, 놀거리, 쉴거리 등 특화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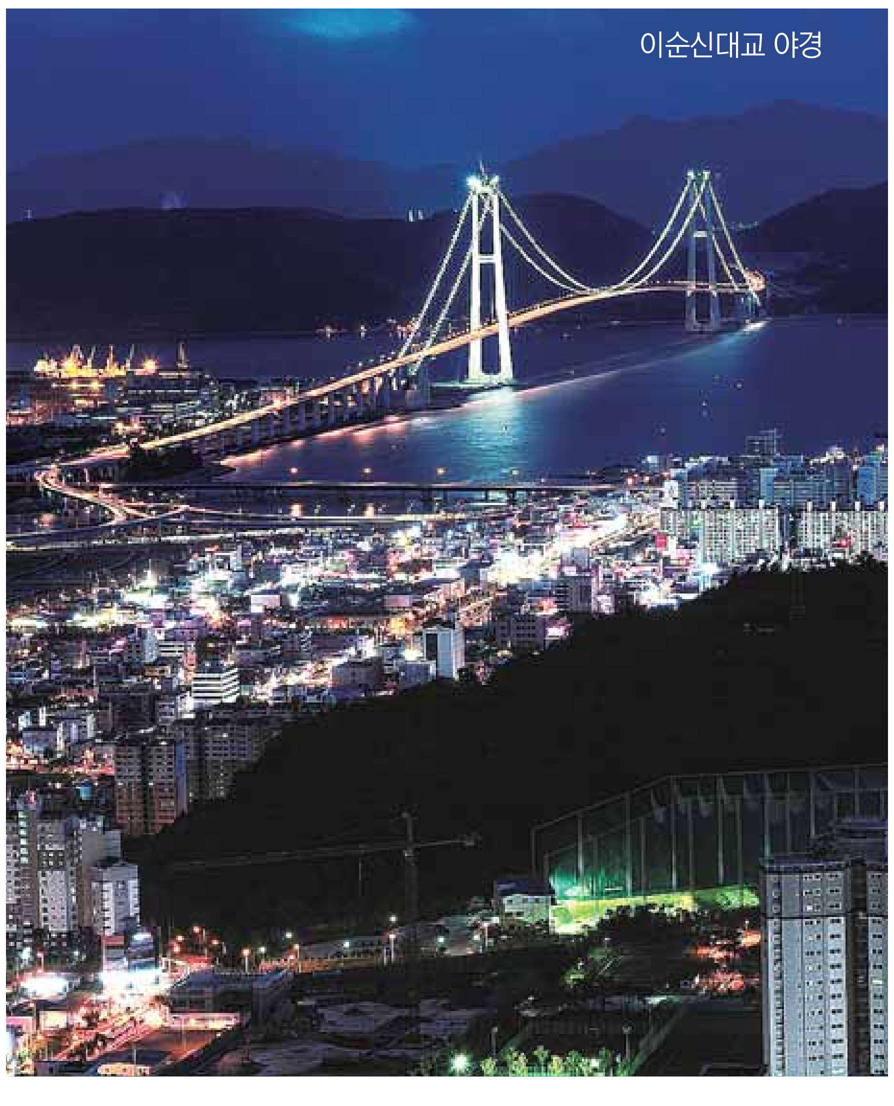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5월 중 1단계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삼화섬과 마동체육공원을 연결하는 보도교에 전망대와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금호동측 해변에 수변전망대, 무지개다리와 경관보도교 연결로, 무지개다리와 길호대교 등 테마거리 주변의 교량을 활용하는 사업이 주를 이룬다.

앞서 시는 구봉산 일원을 단기와 중기, 장기사업으로 나눠 2030년까지 국비와 시비, 민간자본 등 1520억원을 투입해 '약속의 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기사업으로 40억원을 투자해 2021년까지 별빛광장과 어사박문수길 등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도입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광양의 대표적인 중심공간으로 랜드마크화 할 계획이다.

또 금광의 역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폐금광이 있는 광양읍 사곡리 점동마을 주변으로 '점동마을 금광 관광명소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순신대교 야경

시는 총 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해 마을카페와 호수둘레길, 주차장 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1단계 사업을 완료했다.

현재 2단계로 금광 체험시설과 둘레길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라실 예술촌과 라벤더 단지, 구봉산을 연결하는 관광벨트에 문화체험과 힐링을 위한 관광지를 조성중이다.

2020년까지 28억원을 투자해 점동마을과 구봉산전망대를 연결하는 '점동~구봉산전망대 연결도로 개설공사'도 추진하고 있다.

◇섬진강·백운산권 중심 관광개발사업=광양시는 섬진강권 관광개발을 위해 2011년부터 총 295억원을 투입해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종점 관광명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강변산책로와 광장, 주차장, 배알도 수변공원 조성에 79억원을 투입했으며, 배알도수변공원~배알도~망덕회타운을 연결하는 '해상보도교 공사'는 오는 2020년까지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진월면 망덕리~다압면 금천리 섬진강변 일원에 2020년까지 85억원을 들여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오는 5월 중 나루터 복원과 짚와이어, 명품가로수길, 캠핑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섬진강 일대 천혜의 자연관광 자원과 연계한 관광·레포츠기반 시설을 조성해 지속적인 관광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백운산권 중심 관광개발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백운산 4대 계곡인 성불, 동곡, 어치, 금천계곡을 찾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19년까지 90억 원을 투자해 '백운산권역 4대계곡 관광명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산수 관광과 생태체험 등 다양한 레저 활동이 가능하도록 수변공원, 힐링쉼터, 생태탐방로, 수변체험시설, 둘레길 등이 조성돼 관광기반 시설이 확충된다.

김문수 광양시 관광과장은 "기존 관광도시로서 부족한 지역관광의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관광브랜드를 만들고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는 통합적인 관광수용태세 개선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며 "이번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관광도시의 기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12일 광양시와 전남도,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기관 관계자들이 광양항 배후단지 내 154kV 전력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항 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시설
550억원 투입 2020년까지 설치키로

광양항 배후단지 내 154kV 전력공급시설 설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광양시, 전라남도,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광양항 배후단지 내 154kV 전력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현복 광양시장과 윤종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 방희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한 업무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사업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중 국비 5억7천2백 원이 확보됨에 따라 기관 간의 사업비 분담과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역할, 연차별 사업비 확보 등 그동안 협의된 사항을 최종 확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양항 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시설 설치 사업'은 2020년까지 총 사업비 550억 원을 투입해 백운변전소에서 광양항 배후단지 7.5km 구간에 지중화 선로와 2000㎡ 변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황금·세풍산단을 경유해 율촌산단까지 대용량 전력 공급 계통이 확보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양항 배후단지에 대용량 전력 수요 제조기업 유치가 가능해져 광양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현복 시장은 "광양항 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시설이 설치돼 대용량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제조업 등 유망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물동량 증대를 통한 광양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광양기정떡'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 추진

광양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광양기정떡'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증명표장 등록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광양시는 지난 3월부터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권리화사업' 용역을 추진하고 기초환경 조사와 광양기정떡 생산자 현황, 품질특성 조사, 인증마크 개발 등을 해왔다.

지난 6일에는 기정떡 생산자와 관련분야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권리화사업'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예상 문제점 논의와 향후 추진 과정 등을 협의했다.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이란 지역 특산품 명칭이 타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과 명성이 해당 지역의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자가 되어 품질기준을 규정해 지역특산품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토대로 오는 6월 중 특허청에 '광양기정떡'을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으로 출원·등록할 예정이다.

또 특허청으로부터 증명표장 출원 등록이 처리되면 현재 운영 중인 57개소 떡방앗간을 대상으로 2019년에 증명표장 사용자를 선정해 포장디자인비 지원과 품질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광영·의암지구 택지 경쟁입찰 방식 매각

광양시는 광영동과 옥곡면 신금리 일원에 개발하고 있는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조감도〉의 택지(체비지)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낙후된 광영동과 옥곡면 신금리 일원 54만6161㎡를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이 준공되면 2533세대 68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주기반이 구축되며 도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근 신금산단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1000여 세대가 입주 가능한 '덕진 광양의 봄' 아파트도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에 매각하는 대상 필지는 아파트용지 1필지, 연립주택용지 3필지, 단독주택용지 59필지, 지원시설용지 7필지 등 잔여지 총 70필지다.

택지 분양을 원하는 시민은 13일부터 오는 27일 오후 4시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 접속해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택지대금 납부는 입찰시(계약체결 전) 보증금 10%,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 30%, 6개월 내 30%, 1년 이내 20%, 잔금 10%는 토지사용일이나 준공일 2개월 전중 빠른 날에 납부하면 된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